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사법시험 폐지반대 결의안 통과

강선경 의원 발의,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건의



강북구의회 강선경 의원이 발의한 '사법시험 폐지반대 촉구 결의안'이 지난 8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에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돼, 2018년부터는 국내 법조인 배출의 창구가 로스쿨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로스쿨로 일원화될 예정인 법조인 선발방식은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부실한 학사관리, 공직임용기준의 비공개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제한하고 차별을 야기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제도와 장기간 병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제도의 장점들을 살려 국민의 이익에 보다 부합되는 사법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사법시험은 학력·신분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 인식되어진 공정경쟁의 상징인 만큼 사법시험은 로스쿨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일보 4면

강북구의회, '사법시험 폐지반대 촉구 결의안' 발의

강선경 의원,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 '사법시험 폐지반대 촉구 결의안'을 촉구 하고 있는 강선경 의원.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문수·강선경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반대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강선경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섰다.

강선경 의원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에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돼, 2018년부터는 국내 법조인 배출의 창구가 로스쿨로 일원화 될 예정이라며, 로스쿨로 일원화될 예정인 법조인 선발방식은 고비용

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부실한 학사관리, 공직임용기준의 비공개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제한하고 학력

에 의한 법률상의 차별과 나이·배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차별을 야기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제도와 장기간 병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제도의 장점들을 살려 국민의 이익에 보다 부합되는 사법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지금까지도 사법시험은 학력·신분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 인식되어진 공정경쟁의 상징인 만큼 사법시험은 로스쿨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고 하였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강북구의회 '사법시험 폐지반대 촉구 결의'

강선경 의원, "로스쿨은 사실상 차별 야기하는 현대판 음서제" 비판

강북구의회가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8일 '사법시험 폐지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북구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돼, 2018년부터는 국내 법조인 배출 창구가 로스쿨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안 설명에 나선 강선경 의원은 "로스쿨로 일원화될 예정인 법조인 선발방식은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부실한 학사관리, 공직임용기준의 비공개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제한하고 학력에 의한 법률상의 차별과 나이·배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차별을 야기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제도와 장기간 병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제도의 장점들을 살려 국민의 이익에 보다 부합되는 사법서비스 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경 의원은 "공정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지금까지도 사법시험은 학력·신분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로 인식되어진 공정경쟁의 상징인 만큼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다음은 사법시험 폐지 반대 촉구 결의안 전문.
로스쿨 도입과 2009년 공포된 변호사 시험법 부칙 규정에 따라 2017년까지만 실시하기로한 사법시험의 실질적인 폐지

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로스쿨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법서비스에 대한 개혁에 일환으로 만들어져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소수학교 출신에 몰려있던 사법권력 집중 문제 해소와 사법시험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2009년 도입되었다.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도입되었으나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우선,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입학할 수 있어 고등학교 졸업자의 법조인 진출의 기회를 박탈하여 법조인의 진입 장벽을 높였으며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고비용으로 인하여 소수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가진 자에게만 특혜를 주어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 자녀의 권력을 세습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또한 불투명한 입학전형과 부실한 학사관리, 고액의 등록금, 공직임용기준의 비공개로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날로 높아지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안고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법시험 제도는 서민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이며 법조계의 다양성과 견제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로스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제도와 장기간 병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제도의 장점들을 살려 국민의 이익에 보다 부합되는 사법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



강선경 의원이 사법시험 폐지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를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하며 지금까지도 사법시험은 학력·신분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로 인식되어진 공정경쟁의 상징인 만큼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

이에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사법시험 제도 폐지 반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첫째, 모든 국민에게 법조인 진출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차이에 의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실질적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 누구나 법조인을 꿈꿀 수 있고, 노력하여 실력만 겸비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5년 하반기까지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넷째, 법조인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

사법시험 폐지반대 촉구 결의안 통과 강선경 의원 발의



강북구의회 강선경 의원이 발의한 '사법시험 폐지반대 촉구 결의안'이 지난 8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에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돼, 2018년부터는 국내 법조인 배출의 창구가 로스쿨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로스쿨로 일원화될 예정인 법조인 선발 방식은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부실한 학사관리, 공직임용기준의 비공개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제한하고 학력에 의한 법률상의 차

별과 나이·배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차별을 야기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제도와 장기간 병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제도의 장점들을 살려 국민의 이익에 보다 부합되는 사법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공정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하며 지금까지도 사법시험은 학력·신분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로 인식되어진 공정경쟁의 상징인 만큼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